

# 상상속의 나라 종이로 실현한다

지난 7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2003 종이충격전-가자! 마법의 세계로 종이공작 전시회가 한국종이접기 협회(회장 노영혜) 주최, 토마토피앤씨(대표 김형만, [www.tomatopnc.co.kr](http://www.tomatopnc.co.kr))주관으로 서울 장충동 종이나라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종이로 만든 2m짜리 용과 공룡, 식물과 비교 전시되는 종이 독거미, 공군 대령이자 세계 3대 종이비행기 작가로 알려진 이희우 항공학 박사의 모형 전투기, 종이접기를 이용한 컴퓨터게임 등을 관람할 수 있었다.

기자가 전시장을 찾아간 날은 기상청이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비가 이어지던 7월말이었다. 여름 휴가를 위해 많은 인파가 산으로 바다로 떠났을 법도 한데 전시장에는 관람객이 제법 많았다. 비가 내려서인가.

전시장은 그리 넓지 않았다. 일단 전시물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한 작품씩 접근해 보았다.

1층 전시장 입구에서 제일 먼저 관람객을 반긴 것은 용이었다. 특별한 색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의 하얀색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는데 크기는 무려 2m 이상 될 듯 보였다.

바로 그 옆에 곤충마을이 있었다. 곤충마을에는 독거미 타란툴라와 지네의 식물과 모형 등 곤충 120종이 진열돼 있었다. 이 곳의 곤충들은 무수히 많은 다리와 털 하나 하나를 일일이 공작한 공작자의 섬세함으로 무장,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동안 붙잡아 두고 있었다.



곤충마을 옆, 전시장 좌측 벽 쪽에는 공룡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공룡 마을에는 벨로시랩터,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등의 공룡 10여 점이 전시됐다. 전시된 공룡 중에도 역시 2m가 넘는 작품이 있었다. 다양한 크기와 여러 종류의 전시된 공룡을 살펴보는 동안 종이로 재현된 중생대 지구로의 짧은 시간여행을 가져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비행기, 캐릭터 마을 등의 작품들이 선보였는데, 모든 공작물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마디로 정교하게 제작된 데다 형태, 포즈가 실물과 흡사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다.

비행기를 비롯한 몇 가지 전시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은 종이 작가 윤종상씨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흰색 조형물이 주를 이룬다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종이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색채를 배제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이희우 박사의 종이비행기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도 날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특히 이 비행기들은 일반적인 비행기보다 떠 있는 시간이 훨씬 길며 모양에 따라서는 곡예 비행까지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종이접기의 상품화도 시도됐다. 종이접기와 게임을 결합한 '토피토피 고고'가 대표적인 아이템인데, 이는 게임에 종이 접기 내용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등장 캐릭터들의 도면을 출력해 종이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캐릭터 마을에서 선보이는 포켓몬, 디지몬 등 인기 만화영화 주인공 공과 크레이지 아케이드 캐릭터들도 향후에는 종이접기 도안으로 제작, 판매될 예정이다.

(조갑준 기자)

